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히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교교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 가을 수퍼 이벤트 '젠걸음'

## 10/15 기별야구 개막

### 입장식 이어 제33-34회 서전장식

본부동창회(회장 안강태·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가을큰잔치'인 기별야구대회와 용마골프대회가 각각 10월 15일과 30일로 확정, 전국 용마가족들의 뜨거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38회 본부회장기 쟁탈 기별야구대회(주최 본부동창회·주관 경야회)는 오는 10월 15일(일요일) 오전 10시 경남고 야

구장에서 입장식을 거행함으로써 장장 4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올해 대회의 주요골격은 작년 대회와 비슷하다. 대회 첫날은 입장식에 이어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프닝 행사로 장타대회와 부인대항 릴레이 및 벌야구, 연합 A-B팀 번외경기(5회전)를 선보이고, 오후 1시 30분부터 메인 이벤트인 단일팀 제33-34회 대회

첫 경기로 서전을 장식한다. 이 같은 대회 운영은 지난 9월 15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에서 조흥기 경야회 회장(22회)이 주관한 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인됐다.

올해 대회는 2개 연합팀(A팀:제 1~17회·B팀:제 4~18회)과 28개 단일팀(제 19~48회) 등 모두 30개 팀이 출전, 오는 11월 11일(토요일) 결승고지까지 용호상박전을 벌인다.

대회 운영은 경야회·경총회 회원이, 경기 주판은 경야회 회원이 맡는다. 단일팀 모든 경기는 7회전으로 경남중 야구장에서 9게임, 경남고 야구장에서 18게임을

치른다. 전 게임 토너먼트 빅다운제(골드 게임제 없음)이며, 핸디는 2-3회 1점·4-5회 2점·6-7회 3점·8-9회 4점... 등이다.

입장식날 장타대회에는 재학 시절 야구선수를 지낸 동문을 제외

한 모든 동문이 참가, 선배 순으로 1타씩씩 칠 수 있으며 장타를 친 동문에게는 특별상이 전달된다.

▽ 작년 10월 9일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37회 대회 입장식 모습. 이날 동문·가족 500여 명이 참가했다. 11월 5일 열린 결승전에서 제35회가 우승을 했다.



## 모교 새 사령탑... 교풍진작 큰기대

경고 김종석 (24회) 교장  
교감 장성욱 전 장학사  
경중 이정환 교장 취임



이래 모교에서 평교사로 4년간 봉직했고, 이후 본청 중등과 장학사와 문현여고 교감, 북부청 중등과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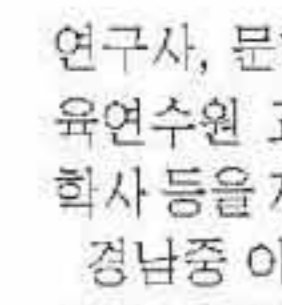
모교(경남중·경남고) 사령탑이 최근 바뀌어 교풍(校風) 진작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경남고에는 동문교장이 취임해 학력증진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대가 크다.

지난 9월 1일 단행한 부산시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경남고 신임교장에 김종석(24회·위) 전 북부청 중등과장, 교감에 장성욱(가운데) 전 본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경남중 교장에 이정환(아래) 전 장림중 교감이 각각 발탁됐다.



권명미 전 경남고 교장과 김철곤(16회) 전 경남중 교장은 각각 정년퇴임했고, 김승수 전 경남고 교감은 본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직무대리로 영진했다.

경남고 김종석 동문교장은 부산대 사범대 수학과를 졸업한



연구사, 문현여고 교사, 부산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본청 장학사 등을 지냈다. 경남중 이정환 신임교장은 경북대 사범대 수학과와 부산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이래 경남공고·부여고·부산서여고를 거쳐 경남고에서만 6년간 봉직했고, 영도중과 장림여중 교감을 역임했다.

### 회장기쟁탈 제38회 기별야구대회('06본부) 대진표

A)연합팀(1게임 5회전:1회~18회 구성)

경고 10/15(일) 11:30  
제1·3·5·7·9·11·13·15·17회      제4·6·8·10·12·14·16·18회

B)단일팀(전 게임 7회전:19회~48회 구성)

경고 11/11(토) 14:00

경고 11/05(일) 12:00

경고 11/05(일) 10:00

경중 11/04(토) 13:30

경고 11/04(토) 15:10

경고 11/04(토) 13:30

경고 11/04(토) 15:10

경고 10/29 11:40

경고 10/28 15:10

경고 10/28 13:30

경고 10/29 15:00

경고 10/22 11:40

경중 10/22 15:00

경중 10/21 13:30

경고 10/22 15:00

경고 10/22 11:40

경중 10/22 15:00

경고 10/21 13:30

경중 10/22 15:00

제 26 회

제 24 회

제 28 회

제 31 회

제 21 회

제 25 회

제 22 회

제 32 회

제 20 회

제 30 회

제 27 회

제 23 회

제 19 회

제 41 회

제 38 회

제 45 회

제 43 회

제 37 회

제 36 회

제 42 회

제 35 회

제 39 회

제 34 회

제 33 회

제 48 회

제 44 회

제 46 회

제 44 회

제 40 회

## 10/30 용마골프 티업

### 부산CC서 55개조 단체·개인전으로

제9회 본부회장기 쟁탈 기별야구대회와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0월 30일(일요일) 오전 9시 부산컨트리

클럽에서 티업, 열전 한마당을 펼친다.

본부동창회(회장 안강태·11

회)가 주최하고 용마골프대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선·14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46개 동기회(제5~50회) 220명이 참가, 55개조로 나눠 아웃코스과 인코스에서 챔피언십컵에 입맞춤하기 위해 기량을 과시하게 된다. <2면에 넘김>



Mercedes-Benz

주식회사 부산스타자동차

회장 유재진 (22회)

과장 오용승 (46회)

전화 010 6500 6404

E-volution

A new generation has arrived. The new E-Class



이 민 희

제32회 SAM 남가주 지부장

### ‘생명수’를 저 강 건너 땅끝까지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가 아직 구불구불한 산길을 안간힘을 쓰며 가다가, 그다지 가파르지 않은 산길에서 뒤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단둥(丹東)에서 수백해 온 가장 고급스러운 신형 버스라는데... 북방의료선교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SAM의 대표 박세복 장로(10회)와 동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지의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믿음에 불과 1주일 만에 북방의료선교팀과 함께 만주 벌판을 달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떠난 지 두 시간도 안 되어 심양에 닿았다.

이틀 날 이른 아침, 첫 목적지 장백으로 출발하려는데 가이드가 “14시간 달려도 중간에 화장실이 없으니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 일행은 길 건너 끝에 북한과 국경 지역인 장백호텔에서 여장을 풀다.

다음 날, 번동이 튼다. 창 밖으로 뿌옇게 해가 솟아 오를 때 개천 너머로 다다다다 불어 있는 낡은 집들이 보인다. 풀 한 포기 없는 민둥산 자락에 붙은 글자판(... 김정일장군 만세!)을 보고 갑자기 가슴에 열음들이 흐르는 듯하다.

개천 건너가 북한땅 해산, 좁은 그 개천이 압록강 상류란다. 그곳에도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만 밤에는 전깃불이 켜진 집이 거의 없고, 식사 때가 되면 몇 집을 빼고는 글썽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 없단다.

우리는 장백의 마을 보건소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한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순식간에 병원 입구에서부터 계단과 복도까지 수백 명의 주민들이 진료 받기 위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30대 어는 환자는 전신 관절통을 치료 받기 위해 새벽부터 50리를 걸어왔다고 한다. 당뇨병과 간암 합병으로 이미 흑달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음 날, 조선족 중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한 후 아직 눈이 쌓여 있는 산길을 돌고 돌아 오전 11시 넘어 그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集安)의 호텔에 도착한다. 현재 집안에는 공개토양비와 장군총 등 유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가이드는 “호텔 안팎으로 중국 공인과 탐복자를 체포하기 위한 특수원들의 삼엄한 감시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한다. 밀려 겁이 난다.

정신없이 모여드는 환자들을 한창 치료하고 있는데, 등목을 받던 권사가 급하

게 달려오며 나에게 다짜고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풍으로 병원에 누워 몇 달을 입원하고 있던 환자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치료 받으러 왔는데, 침 치료를 받고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라고 일러준다. 나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며 계속 환자를 치료한다. 나만 보면 ‘기적을 일으킨 선생님...’이라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권사를 말리느라 한동안 땀을 흘렸다.

주일이 되어 조선족 삼자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한 번의 기도를 위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 나가는 강 건너 성도들에 대한 죄송스러움”으로 가슴 속은 복잡한 포돌선들이 교차하고 있다.

마지막 날, 북방지역을 위해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결정체인 단둥병원에 도착한다.

압록강 선상기도회를 위해 우리 일행

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불과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신의주 북한 주민들을 본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까!”, “사랑해요!”라며 부르고 외쳐도 낡은 배 위에서, 강둑 위에서 간혹 몇 사람은 우리에게 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보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삶에 지친 듯한 건조한 그네들의 모습들은 서글픈 느낌으로 마음을 짓누른다.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저들이 사는 나라라는 마음 놓고 갈 수도 없고 지구의 가장 끝에 있는 먼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안타까움이 불결친다.

배 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르던 ‘불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은 차라리 오열이었다. 바로 손을 벌리면 땅을 뜻 지척에 보이는 저 형제들... 육적인 자유도, 영적인 자유도 용납되지 않는 저 땅에 생명줄을 던져서 저주의 심해로 빠져 들어가는 저 형제들을 하루속히 구원해 달라는 합심기도는 피를 토하는 듯한 울부짖음이었다.

SAM의 조그마한 사랑의 몸짓도 밑알이 되어 언젠가는 저 굳게 닫힌 독을 무너뜨려 하늘의 생명수가 넘실거리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내 민족이 살고 있는 강 건너 바로 저 땅끝까지...



〈2면 '용마골프 티업'서 받음〉

### “산은 멀리서 보고 노닐고 즐기는 곳” 재경 경팔산우회 짬뽕더위에도 4개 봉우리 등정

조 편성은 동기회별 관계없이 핸디에 따라 싱글(1~9)·로우(10~12)·중간(13~16) 끼리 시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조 동문 경우 희망 동반자(같은 동기회 선수 또는 원하는 선수) 끼리 대전하게 된다.

경기는 단체전·개인전·시니어부·여성부로 나뉘 치른다.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경우 각 동기회 선수 중 베스트 3명 기록을 합산하여 우승·준우승·3위까지, 개인전 (뉴페어 방식)은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3~5위·니어핀·롱기스트·행운상까지 시상한다.

시니어부는 제1~12회 선수끼리 불어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까지, 여성부는 동문 부인만 출전해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까지 시상한다.

특히 출원원상(아웃코스 5번홀) 수상자에게 트로피 및 부상과 부부 동반여 여행 경비를, 행운대상 수상자에게 혼마 드라이버를 시상한다.

산을 성스럽게 여겼던 옛사람들은 산을 '오른다(登山) 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간다(入山)고 했다 합니다. 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기대고 싶은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산을 두고 관산(觀山), 유산(遊山), 요산(樂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산을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들어가 노닐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기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재경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주말등반을 빠뜨리지 않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신에 오를 수 없고, 그 산행에서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일상적인 행복의 원천임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벽 한 일이며, 자기 두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안다”고 누군가 말했다.

살아 있음은, 건강한 육신을 갖

고 있음은 그 자체로 감격이요, 축복이기에, 더 많이 느끼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산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계곡물은 더욱 깊어지는 계절, 그 위대했던 여름도 결실의 가을을 위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우회는 지난 8월에도 네 차례의 산행으로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차례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일 = 도봉산(11명). 얼음에 채운 매실주와 빈대떡 흥합 등 안주(조운제 회원 제공)로 피서도.

△ 11일 = 수락산(17명). 흥기성 회원이 마련한 숲길길비로 포식.

△ 18일 = 관악산(13명). 이희순 회원이 밤새 얼린 맥주(1.6ℓ 2병)를 갖고와 정상 부근에서 시원한 건배.

△ 25일 = 북한산(6명). 일부 회원의 외유와 개인사정으로 소수 정예(?) 등반.

〈취재 : 정상현〉

### 골프·바둑 폭서로 TKO

재경 경팔회(회장 김동훈) 골프모임 잔디회는 배우원 회장 주재로 9월18일(월) 정오부터 기흥CC 동·남코스에서 5팀이 참가, 제 149회 월례대회를 개최했다(8월 모임은 폭염으로 휴회).

바둑모임 필선회는 이유환 회장 주재로 같은 달 15일(금) 오후 2

시 한일기원에서 올해 여덟 번째 모임인 9월정례대회를 펼쳤다(8월 모임은 폭서로 휴회).

### 꽃피참석 최대영 바둑우승

앞서 7월2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올해 여섯 번째 대국에는 김정곤(감부상) 이유환 윤태영 배우원 전 영배(준우승) 신현주 이창우 최대영 동문(우승-도착순)이 참석했다.

### “가을이 좋은 종군... 더 멀리 뛰자”

#### 경열회 각 클럽 원기 회복

재경 경열회(회장 정인호) 각 친목회는 9월 활동에 원기발산.

분당회(회장 김연수)는 16일 6시30분 지하철 서현역 근처 기와집순두부에서, 산본회(회장 윤영태)는 12일 정오 신본역 근처 이어수산 직영 한판회마당에서, 강북회(회장 강제환)는 5일 정오 평래옥에서 각각 만나정을 나눴다.

9일 오전 대공원 삼림욕장을 트래킹했던 사니조야회장 이계창)는 23일 아차산에 올랐고, 정우회(회장 정상수)는 21일 오전 평촌 중앙테니스장에서 기량을 겨뤘다. 동수회(회장 김영덕)는 26일 오후 2시 지하철 교대역 근처 급연기원에서, 경복회(회장 이정배)는 28일 정오 자유CC에서 만나 열전을 벌인다.

#### 회장단·보수회·등대회 개최 발전기금·협찬금 쾌적

제14회동기회(회장 김용호)는 7월 26일 오후 7시 서면 그래와 참치 핫집에서 회장단 회의를, 보수회(회장 이길미)는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중앙동 신북경반점에서 정례회(19명)를, 등대회(회장 이종수)는 같은 달 14일 오후 6시30분 자갈치시장 호포식당에서 정례회(12명 참석)를 열었다. 특히 보수회 박호건 고문은 발전기금을, 김용호 동기회장과 박춘제 김의웅 이종수 동문은 협찬금을 기탁했다.

#### 전남담양서 가사문학 체험 일문문화유적답사회 4차행사

제15회일문문화유적답사회 제4차 나들이 행사가 지난 7월 30일 조선의 별서와 가사문학의 산실인 전남 담양 정자마을 일원에서 펼쳐졌다. 정창환 회장이 인솔한 답사팀 23명(부인 7명 포함)은 이날 전남 담양의 소재원-환벽당-분화관-점심식사-식영정-명옥헌-송강정-면양정을 살펴 보았다. 귀가길에 경남 사천 서포면 비토에 들러 자연산 생선회로 시장기를 달렸다.

# “재기...도약...” 선언

## 제16회 임시총회 열어 신입회장 김 조 선출

제16회동기회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동기회 사무실 옆 오케이목장에서 임시총회(올해 두 번째)를 열어 신입회장에 김 조 고문(천우교역 대표이사·원내)을 선출하고 “재기와 도약”을 선언했다.

옥윤석 고문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새 사령탑을 김 조 고문에게 맡겼고 이경일 감사장을 유임시켰다. 이에 따라 김 선임회장은 동문 대

조·필양 변일수 동문 등 오랜만에 보는 동문들의 소개가 있었고, 양성민 고문의 선창에 따라 축배를 들었다.

김 조 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날 누구나 부러워했던 16회의 저력을 다시 재충전시켜 도약하자”며 “우리의 여생은 그리 길지도 않은 만큼 모두가 자중자애하는 자세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여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지난 8월 30일 저녁에 열린 임시총회 모습 김 조 선임회장이 좌석을 돌며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합과 새로운 동기회문화 구축, 결속력 강화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옥윤석 고문을 사무국장으로 발탁했다.

김 조 선임회장은 지난 83년 제8대 회장을 지냈고, 부산지역 해운·항만·수산·해상 불류업 등에 종사하는 동문들을 모인 등대회 회장을 다년간 연임하는 등 동창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앞서 총회는 경과보고에 이어 대구 채경일·창원 손환

이어 옥 선임 사무국장은 “사무실의 구조를 오는 9월 중순까지 누구나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사랑방’으로 리모델링하고, 폐적한 센터가 폐계급 격일급 연계를 실시하며, 상호 아담하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분위기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총회가 끝나자 일부 친구들은 인근 만포주점에서 노래자랑 등으로 회포를 풀었다.



# 후라 30돌 축하회 합동찬치로

## 제24회동기회 월례회

제24회동기회는 지난 5월20일 저녁 크리스탈뷔페에서 월례회와 후라회 30주년 기념 축하연을 겸해 열었다(사진).

안상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학창시절 추억에서부터 최근의 근황, 후라회와 야구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다.

안상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전통의 후라회를 이끌어온 회원 여러분의 저력을 치하한다”며 “모교 야구 중흥에 밑거름이 계속되자”고 말했다.

우흥하 서울 회장은 답사를 통해 “후라비회원인 부산의 동기생

들도 후라 30주년 행사에 수고가 많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후라 40주년 행사를 서울에서 마련하고 비회원 부산 동문들도 초대해 멋진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염천 물렸거라!”

## 14K 친목회별 활동 앙성

14K 부산·서울 동문들이 8월 염천에도 등산을 비롯해 바둑 당구 등 취미별 클럽 활동을 펼쳤다.

부산 경주 당구모임인 KBC는 5일 오후 4시 초량동 풀코당구장에서 월례대회를 열었다. 조영봉 회장이 주재한 이날 시합에는 모두 11명이 참가, 토너먼트로 시중

일관 격돌한 끝에 우승은 강주신, 준우승은 유정호 동문이 입회 후 처음으로 입상하여 박수를 받았다.

우승 강주신·오충철 차지  
14K 부산·서울별 당구 시합

한편 서울은 앞서 지난 7월15일 오후 3시 회관 뒤 재즈클럽에서 27명(선수 23명·응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대회를 개최했다.

# 해변·계곡서 섬머헌팅 우정·낭만 만발

지난 여름은 무더위도 더워 사람들을 온통 지치게 했다. 앞서 폭우가 강원도 등을 휩쓸어 많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채기가 아물기도 전에 폭서가 들이닥쳐 이중고를 겪으며 견뎌냈다. 이를 이기기 위해 동문들

은 가족들을 동반해 해변이나 계곡 등에서 심신을 담금질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우정과 낭만을 ‘희망의 샘’에서 한껏 퍼올려 화합과 결속의 향아리가 넘치도록 담았다.

# 활어·전복·산낙지회 특미에 “원더풀!”

제16회 일육회 ‘06송정해변 카니발이 지난 8월 1~3일 2박3일 일정으로 이곳 해수욕장 앞 20여 년 단골인 도가집(민박 전용)을 베이스캠프로 해서 열렸다(사진).

옥윤석 고문이 추진단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는 부산에서 이평립 직전회장을 비롯해 45명, 서울에서 이상철 회장 등 20명 등 모두 65명(부인·자녀 포함)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20년 넘게 캠프단장을 맡아온 변용현 동문이 지난 3월 6일 유명을달리함에 따라 고인의 명복을 비는 특념을 비롯해

추모의 뜻이 넘쳐 그간의 헌신이 더욱 돋보였다.

부산·서울 등지 동문·가족들은 사흘간 육 고문을 비롯한 행사

추진단원들이 끈질기게(?) 공급해주는 싱싱한 생선회와 전복 소라 명게 산낙지 등 각종 해물 먹거리에 우정의 술잔을 마다하지 않았고, 밤을 지새는 정담과 노래방 여흥으로 친교를 펼쳤다.



# 전국 동문·가족 100여명 무주에 모여

현지 답사한 후 행사장을 무주종합수련회로 최종 결정했었다.

제24회 제24회는 지난 8월 26~27일 1박2일 일정으로 무주종합수련원에서 여름캠프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용마가족 1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사진).

안상수 회장이 주재한 행사는 앞서 지난 6월20일 하단 아가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장소·일정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배재일 수석부회장과 최승국 고문, 황성동 총무가 거제와 무주를



# 족구 등 게임·산사 - 들꽃학습원도 탐방

제28회 제28회동기회는 지난 7월1~2일 1박2일 일정의 ‘06 여름캠프를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반용동 숲속의 집에서 기우회 주관으로 열었다(사진).

이번 행사는 동기회장과 기우회장을 비롯한 동문 26명과 가족 15명(부인 13명·자녀 2명) 등 모두 41명이 참석해 족구(4개팀 출전·토너먼트제)와 알까기, 오목 등 시합과 은을암 산책 및 들꽃학습원 관람으로 치러졌다.

중목별 입상자와 금품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3개 시합 입상자 △족구=우승 이명재 조광제 김원홍 이양훈 팀(2승) △알까기=우승 정인식·준우승 김난숙·3위 서형

원·4위 이옥경 △오목=우승 정애경·준우승 고영주·3위 이옥경·4위 이훈자.

▲금품협찬자 △김준배:30만 원·양주 1병 △김용진:21만 원·양주 보드카 고량주 등 3병 △권수원 정치영 엄재홍:각 20만 원 △족구 출전비:12만 원 △계호경 15

만 원(기념타올 50장 대금) △김명영 백영호 이강욱 전학영 최태열 우건식 강용수: 각 10만 원(김용진·강용수 동문 협찬금은 본인 요청에 따라 28야구팀 기금으로 충당) △정인식:판화 1점(기우회 총무에게 전달) △4만 원권 주유티켓(정인식 동문에게 전달) △기우회:에이프린 50개 △배철영:정력제 21알(30만 원 상당).



이날 시합은 갑조(이용하 등 11명)과 을조(김우남 등 12명)로 나눠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드라마를 연출한 끝에 을조의 오종철·허인구 동문이 나란히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고 패자전에서 우승한 이용화 동문(갑조)이 3위에 올랐다. 회장단은 단합회에서 “회원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오종철 동문은 우승으로 금일봉을 쾌척했다.

낙석회 대국 우승 박중철 부인 11명 참석해 화기애애 부산의 바둑모임 낙석회는 같은 달 13일 청룡동 동춘장에서 월례대국을 벌여 우승 박중철·준우승 김병철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조영봉 동문이 주관한 이날 모임에는 24명(부인 11명 포함)이 참석,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정을 나눴다. 부산의 낙석회는 월례회 때마다 거의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는 게 특징이다.

### 이원기 (7회) 74세에 경영학 박사 되다 석사학위 40년 만의 쾌거... "친구들 술마실 때 학업투사"

74세의 몸마가 말할 수 없이 힘든 주경야독(晝耕夜讀) 끝에 지난 8월24일 인하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다. 주인공은 봉제의류 수출업체 원풍물산(주) 회장인 이원기 동문(7회·사진). 석사학위 취득 40년 만에 쾌거를 올린 이 동문은 인하대 개교 이래 최고령 졸업자가 됐다.



이 동문의 학위 논문은 '심리적 입과 위먼트가 조직몰입과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는 30년 넘는 회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경남중 재학 중 6·25 전쟁을 맞아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이 동문은 독학으로 영어를 배워 통역장교로 근무했고, 이 인연으로 국방부 공무원이 됐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공직을 떠나자 봉제의류사업을 시작, 성공을 거뒀다.

이 동문은 "친구들이 술 마시고 골프하는 사이 학업에 열중했다"고 말했다.

### 첫 경부합동등산 대성황

#### 제18회동기회 문경새재에 106명 집결

제18회동기회 사상 첫 부산·서울 합동등산대회가 지난 9월3일 문경새재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에서 53명(부인 21명), 서울에서 53명(부인 15명) 등 106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조령산 휴양림 산그림휴게소 주차장 서울팀(부산팀보다 50분 가량 먼저 도착)은 부산팀을 기다리고 있다가 일행들이 당도하

일행은 제3문을 지나 1시간쯤 뒤 동화원휴게소에 도착, 부근 잔디밭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점심식사(약60분)를 한 후 제2문을 거쳐 제3문(15:30)에 이르러 후식을 취한 뒤 단체사진을 찍고 문경종합운동장으로 향했다.

일행은 은천역 후 한식당 조령관에서 저녁식사 겸 단합회를 펼쳐 술잔을 주고 받았다.



문경새재 등반에 나선 제18회 부산·서울 윤가족들이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합동 산행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포즈를 취하며 새로운 추억을 렌즈에 담았다.

자 힘찬 박수로 환영했다. 산행코스는 조령산(해발 1017m)과 주출산(1075m)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조령 제3문(조령관) 제2문(조곡관) 제1문(주출관)에 이르는 약 10km 구간. 거의 완만한 내리막길인데다 날씨가 쾌청하고 계곡을 타고 흘러주는 바람까지 상쾌해 발걸음이 가벼웠다.

식사가 끝나자 설광우 서울회장의 선창으로 "후라 18!"을 힘차게 외친 뒤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눴다(18:30). 이날 행사는 앞서 4월30일 부산동기회가 실시한 봄철 철마산 등반대회에 참석했던 서울의 설광우 회장과 부산의 박상욱 회장, 양정만 총무의 공동기획으로 이뤄졌다.

직을 맡고 있다. 중학교 때 기계제조, 고교 때 유도와 펜싱을 하다 유도만 했다. 지난 2001년 동의대 남자 사브트림 신파역을 맡아 동의대를 전국체전 2연패·은은석 대구U대회 개인전 은메달·전국체전 종합우승 등에 맹크시켰다. (주)일신철계 회장인 이 동문은 부산시청 청사를 비롯해 부산진구청사, 연제구청사, 동래구청사, 누리마루, 부산시립미술관, 벅스코,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등을 설계했고, '전국건축잡지' <이상건축>을 2004년 초까지 12년간 발행했다.

유적탐방·관광 접목 청평사에서 여행연습 재경21회, 등산패턴 바뀌 제21회동기회는 올해 가을철 등산부터 문화유적 답사와 관광을 겸한 이벤트를 접목시켜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집행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10일 회장 등 29명이 강원 춘천시 근교 김봉산 등반길에 올라 소양강댐 나무터에서 유람선을 타고 청평사에 들어가 불교문화 답사하고 수려한 주변 풍광을 즐기는 여행연습을 실시해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 제5회 김정규 회장 선임

제5회동기회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천우장 4층 레스토랑 아프리카에서 '06정기총회를 열어 김정규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경과보고와 결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새로 뽑고 총무에 이문기 동문을 지명했다.



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한 이 동문은 MBC에 입사, PD로 출발한 이래 교양제작국장·편성본부장·대구MBC 사장·MBC 문화방송 사장·한국방송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연가'·'단풍비가' 등 4편. 박 동문은 부산대 의예과를 수료한 후 다시 건축학을 전공하여 건설산업계에 진출했고, 기반을 쌓아 현재는 (주)신태양건설 회장으로 활약 중이다. 박동문의 시 '그늘이 맑다'는 설중매와 등백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설중매를 소개한다. "이 딱딱 마주치는 시린 겨울/수줍은 꽃망울을 옷이 열어/은은한 향기 서릿발 속 흠으며/의연한 그리움으로/늘 정정하게 서 계시던/환한 두레밥상머리/내 어머니 같은 꽃"

### 이금희 (18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금희 동문(18회·전 MBC 사장·사진)은 지난 8월 17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중앙

### 박상호 (26회) <열린시화>신인상...시인 등단

박상호 동문(26회·본부 부회장·사진)은 계간 <열린시화>이 최근 공모한 신인상(시부문)에 당선,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번 당선작('06가을호 발표)은 '그늘이 맑다'·'수련(垂蓮)·

### 서기석 (26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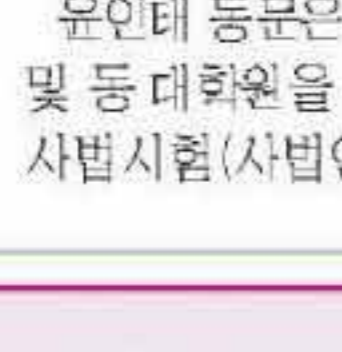
김경종 (27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윤인태 (30회)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11기)에 합격한 이래 서울고법 판사·대법 재판연구관·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경종 동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워싱턴주립대를 수료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9기)한 이래 서울고법판사·대법 재판연구관·서울지법과 부산고법 등 부장판사를 지냈다.



윤인태 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 및 등 대학원을 수료했다.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합격

한 이래 제3군사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창원 부산 울산지법 부장판사·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 했다.

### 이용홍 (19회) 15년간 부산펜싱협회장에

이용홍 동문(19회·본부 부회장·사진)은 최근 국제신문의 '경기단체장과의 만남' 기획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 부산펜싱협회장으로서의 보람과 애로사항 등을 밝혔다.

부산의 50명 경기단체장 중 '최장수'로 손꼽히는 이 동문은 1992년 펜싱협회장을 맡은 후 잠시 신병치료를 빼고 15년째 회장

지난 8월 23일 대법원이 단행한 고법 부장판사급 인사에서 서기석 동문(26회·위)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로, 김경종 동문(27회·가운데)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윤인태 동문(30회·아래)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 각각 영진됐다. 서기석 동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등 대학원을 수료했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 ♥신혼여행

신혼 부부가 경주 불국사로 신혼여행을 갔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커피숍에서 전망 좋은 유리창 밖을 내다보는데 비가 부슬 부슬 내리고 있었다. 돌이 뭐라 뭐라 얘기하더니 신랑이 화를 버럭 내며 나가 버렸다. 신부가 뭐라 그랬게??? "신혼여행을 때마다 비가 오네유~"

### ♥할멈, 나 무거워?

영감 할멈이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지친 할멈.

-영감~ 나 좀 업어 줘!  
영감도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모른척 할 수 없어 할멈을 업었는데 할멈이 알뜰하게 묻는다.  
-영감~, 무거워?  
-그럼~ 무겁지!  
얼굴 찡찡이지, 머리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할멈을 내려 놓고 한참 걸다 지친 영감이 청한다.  
-할멈~ 이제 나도 좀 업어 줘!  
기가 막힌 할멈. 그래도 영감을 업는다.  
-영감~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할멈의 대답.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너~무 가볍고말고요.

### 웃고살자

### ♥하늘나라 공사 중

어느 날, 한 남자가 죽어 하늘나라에 갔다. 평소엔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제 발로 지옥을 찾아가셨단다. 그런데 지옥문 앞에 가보니 '공사 중' 팻말이 붙어있었다. 두덜거리며 돌아서다가 열라대왕을 만나 이유를 물었다. 열라대왕이 대답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다시 고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어쩌나 찜질방이랑 불가마를 많이 다녔는지 지옥불

정도엔 그저 '야 따뜻하다, 시원하고 좋다.'라고 하니 지옥 생긴 이래로 처음 개수 공사를 다 하고 있다 지금 온도가 높은 공사 중이다.' 라고 그래서 그 남자는 천국으로 갔다. 그랬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었다. 옥황상제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천국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다. 어쩌나 성형 수술을 해대는지 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자동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는 중' 라고.

### ♥사오정 이력서

사오정이 그 동안의 방탕한 백수생활을 청산하고 취직을 하기로 맘을 먹었다. 친구 팔계에게 옷을 빌려 입고 이력서를 들고 어떤 기업에 찾아갔다.

그는 이력서를 자신있게 내 놓았다. 우리의 사오정, 이력서는 어떤지 살펴보자.  
성 명 : 사오정  
본 적 : 누굴 말입니까?  
주 소 : 뭘 달라는 겁니까?  
호 주 : 기본 적 없음  
성 별 : 사  
신 장 : 두개 다 있음  
가족 관계 : 가족과는 관계를 갖지 않음  
지원 동기 : 우리 학과 동기인 수영님 이랑 같이 지원했음  
모 교 : 엄마가 다닌 학교라서 난 모름  
자기 소개 :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쁨 수상 경력 : 배 타 본 적 없음

“와! 서울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숨어 있을 줄이야...”

### 14K산악회, 아차산~용마산 등산

“등산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숨어 있을 줄이야...”

서울에 20~30년 동안 살고 있는 14K 용마가족들이 곁에 두고도 모르고 지냈던 비경(?)을 찾아 나서 감탄연발이었다.

지난 7월23일 오전 9시30분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대합실, 14K 용마가족 45명(부인 8명 포함)은 반가움을 나눴다.

일행은 박진 산악회장의 리더로 지하철에 승차, 여행을 겸한 산행에 나섰다.

워커힐이 등 뒤로 밀려 나갔다. 한참 후에 고구려의 유적이 남아 있는 아차산의 평탄한 숲길을 걸어 동북서울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와 보이는 그리 높지 않은 용마산(348m)을 올랐다.

일행은 용마산을 깎아 만든 인공폭포에서 내리쬐는 시원한 물줄기를 보고는 “서울에 이런 곳이 숨어 있는 줄은 차마 몰랐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시장기를 견디지 못한 산꾼들은 박진 회장이 찾아낸 일식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끼리끼리 당구

장으로,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지난 6월 수술을 받았던 김공동문이 거의 완쾌된 상태로 참가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처음 나온 남창희 동문도 환영을 받았다. 또 최낙섭 동문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까지 와주어 고맙다며 노래방 경비를 전액 부담했고 참석하지 못한 진선대 동문은 금일봉을 보내왔다.

<취재·이광우 '14K한미당 편집장'>



### Robinson Ranch에서

80여 학교 대항 골프 출전기 **안 방 호**

6월8일, 대망의 날은 밝았다. 로빈슨 랜치는 아름다운 골프장이다. 모교의 이름과 자기 이름 석자를 달고 모여서 작전계획을 짜고 다른 한쪽은 퍼팅 연습.

우리 용마 팀은 레인지에 모여서 “열심히 해 봅시다. 파이팅!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고 치세요.” 격려를 주고 받았다.

오후 1시, 카트를 타고 떠나는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60이 넘는 나이에 폐만 끼치면 어떡하냐’.

떠나는 길목에서 김성중 골프회장의 따뜻한 한 마디. “형님, 수고하시고 평소 대로만 치세요.” 웃음 짓는 그 얼굴. 정말 잘 해야지.

80여 학교와 100명의 선수, 임원 그리고 심판관들이 샷건으로 게임을 치르기 시작했다.

난 15번 홀이다. 대전고, 리라국교, 성남고, 경남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나보고 티샷을 먼저 하라기에 티박스에 올라서니 갑자기 손이 떨려 공을 올릴 수가

없다. 다리가 힘이 없어 스윙도 까먹고 어깨는 잔뜩 힘이 들고... 나도 모르게 공을 쳤다. 역시나 따블. 두 번째 홀도 따블. 세 번째는 보기.

마음을 비웠다. 그러니까 파행진이었다. 정신없이 쳐다보니 18홀을 다 돌고 시합은 끝났다. 10오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다.

우리 팀이 10등이란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난 나름대로 만족을 했다.

이번 골프 대회에서 얻은 것은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자기 모교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 용마들도 우승기를 쳐다보면서 ‘내년에는 기필코 우리를 것이다.’고 다짐하였다.

이서희 등창회장, 김성중 골프회장, 그리고 격려해 주신 동문들과 분투하신 우리 선수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제19회·미국 남가주 거주>

### 광안대교 눈부신 야경 속 제15회, 부부 동반 월례회

제15회는 지난 6월24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수영구민락동 횡촌의 청도미가릿집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김경일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부부동반 40여 명이 참석, 심성헌 생선회의 깊은 맛을 음미하며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의 야경을 즐겼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네 차례 이상 모임을 열어 친구들을 자주 보고 부인들도 위로하겠다”고 말했다. 일행은 김경일 회장이 마련한 노래방 뒤풀이 행사에서 부부합창지랑 등으로 신바람을 피웠다.

### 수담으로 꽃 피운 '50년 우정'

제15회 부산-서울 합동바둑대회기 **조 일 랑**

우승 허두영·김충식 차지

일오기우회(제15회 부산 바둑모임) 주관 경부합동바둑대회가 지난 7월 8~9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에서 30여명, 서울에서 13명이 참가해 8일 전야제·9일 바둑대회 및 단합회로 우정을 꽃피웠다.

전야제 8일 오후 김경일 회장 등 부산 친구 10여 명은 부산역에서 재경회 박영무 회장과 보름기우회 서병길 회장 등 13명의 올환영했다.

일행은 비 내리는 부산풍경을

박영무 재경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정 총 보름장터 편집장의 건배 제의로 축배를 들었다. 심성헌 생선회는 서울의 양주 2병을 단숨에 비우게 했다. 일행은 회식 후 학창시절의 추억을 안고 송도 밤 바다를 감상했고 메트로노래방에서 뒤풀이를 했다.

바둑대회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의 20여 명과 서울의 대표기사 13명(김도훈 김충식 라정연 박영무 서병길 서영진 이경원 이덕일 이승우 이영우 정 총 최광열 최태치-이상 가나다순)은 중앙바둑센터에서 A, B조로 수담을 나누었다. 이날 A조는 우승 허두영·2등



차장으로 감상하며 송도에 도착, 미리 와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부산 친구들과 재회했다.

전야제 일오기우회 조일랑 총무의 사회로 전야제의 막이 올랐다. 일오기우회 서정욱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서병길 재경보름기우회 회장에게 꽃다발을 선사했다.

서병길 회장은 답사를 한 후 부산의 서정욱 회장에게 꽃다발을 답례했다.

박영무·3등 라정연 동문이, B조는 우승 김충식·2등 이경원·3등 최광열 동문이 차지했다.

송별회 일행은 부산회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를 겸한 송별회를 가졌다. 서병길 회장은 “부산 친구들의 환대에 감사한다”며 내년 서울대회에 부산 친구들이 많이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친구들은 오후 7시40분 KTX편으로 부산을 떠났다.

<동시 감상>

### 하늘

최성근  
제1회·미국 LA 거주

저 하늘의 구름  
잡히지 않네  
아름다운 그림  
고운 그림

저 하늘의 달  
로끼가 산다고  
늘 웃고 있네  
환하게 웃고 있네

저 하늘의 해님  
밝은 빛을 주지  
밤에는 무얼 할꼬  
낮에만 찾아오네

하늘! 멀리 보이지만  
구름달님 해님 또 별님  
사이 좋게 지내지요  
우리도 사이 좋게 지내자  
저 하늘처럼

### 은사

이성욱(은사)=SungWook Lee, 108 Stratheam Ave. Richmond Hill ON L4B 2I6, (Tel)905-770-0846

장영운(은사)=YoungWoon Jang, 215 Campbell Ave. Vaughan ON L4J 5B1, (Tel)905-763-6857

盧在祥(8회)=JaiSang Roh, 4437 Badminton Dr. Mississauga ON L5M 3G9, (Tel)905-858-5986

朴洙泳(8회)=SooYoung Park, (Tel)718-358-8666

元永信(8회)=YoungShin Won, 49 Green Ln #206 Thornhill ON L3T 7M9, (Tel)905-597-0122

李滿(11회)=Man Lee, 3345 Silverado Dr. #27 Mississauga ON L5A 3Y8, (Tel)905-896-1975

南宮英樹(12회)=YoungSoo Namgoons, 95 Old Colony Rd, Richmond Hill ON L4E 3X2, (Tel)905-773-5819

李昌煥(12회)=ChangWhan Lee, 28 Drydak Cres. North York ON M2H 1M8, (Tel)416-499-4043

김정화(12회)=JungHwa Kim, 68 Millers Grove North York ON M2R 3R9, (Tel)416-663-6970

高載赫(13회)=JaeHyuk Goh, 26590 Park Rd. Sutton ON L0E 1R0, (Tel)416-512-7674·905-722-

### 어디서 무엇을

<캐나다 토론토지역동창회 ①>

5851 文若吉(13회)=AmGil Moon, 48 Brahms Ave. North York O N M2H 1H4, (Tel)416-502-0081

朴道三(13회)=DoSam Park, 320 McCowan Rd. #314 Scarborough ON M1J 3N2, (Tel)416-267-2543

尹榮秀(14회)=YungSoo Yoon, 42 Key Dr. Rexdale ON M9V 4V6, (Tel)416-742-1803

李益弘(14회)=IkHoog Lee, 17

Rockingham Ct. Thornhill ON L3T 7R8, (Tel)905-889-8658·905-475-4130

李憲正(14회)=HunJung Lee, 900 Steeles Ave. W. #801 Thornhill ON L4J 8C2, (Tel)905-760-9925·905-669-2214

裴英功(14회)=YungGong Bae, 5 Emelad Lane #507 Thornhill ON L4J 8E8, (Tel)416-398-2221·905-453-0222

吳俊相(14회)=JoonSang Oh, 221 Alfred Ave. North York ON M2N 3J7, (Tel)416-478-5249

桂大勳(15회)=DaiHoon Kye, 31 Woodbury Rd. Etobicoke ON M8W

IX5. (Tel)416-259-0829

權正雄(15회)=JungWoong Kwon, 2018-25 Kingsbridge Grdn Cir. Mississauga ON L5R 4B1, (Tel)905-755-9677

嚴柱益(16회)=Juk Um, 55 Harbour Sq. #716 Toronto ON M5J 2L1, (Tel)416-368-9721

李東根(16회)=DongKenn Lee, #2011-30 Greenfield Ave. North York ON M2N 3C8, (Tel)416-423-3427

朴正瑾(16회)=JungGeun Park, General Delivery Camavon ON K0M 1J0, (Tel)705-286-2422·705-489-2234

<6면에 계속>

### 선망의 대상 일본 타테야마 등정

제20회 재경동기회 백두산악회 28명 원정산행

2년마다 해외 유명산을 오르는데 백두산악회(재경 20회) 28명의 용마들이 올리는 일본 북알프스 타테야마(立山·3015m) 연봉을 등정했다.

지난 8월 25~28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원정에 나선 백두회 일행은 양태운 회장과 김영창 총무의 리드로 첫날(25일) 무로노(室糖) 라이조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날 저녁 원정단은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전야제를 신장에서 치렀다.

둘째 날(26일)이 밝자 등산장비를 단단히 점검한 일행은 산꾼들



의 선망의 대상인 타테야마 연봉을 8시간에 걸쳐 도전, 등정에 성공했다.

셋째 날(27일)은 북알프스 최대의 비경인 알펜루트 무로노~구

▽ 제20회 재경동기회 백두산악회 동문·가족 28명이 일본 타테야마 등정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백두회는 2년마다 해외 원정 등반을 실시하고 있다.

로베담~오기자와를 탐방했다.

원정 마지막 날 일행은 교토와 오사카 등지 명승지 관광을 하며 견문을 넓히고 28일 서울로 돌아왔다.

### 몸은 천근이나 마음은 청춘

제14회 신우회 한라산 등정기 김재도

지난 8월 11일 오후 6시 부산 연안여객터미널, 14K 알피니스트들이 한라산 등반을 위해 집결하고 있다.

오후 7시 김용호 회장·김재도 산행대장·부인 등 17명(김용호 박병선 최경열 박청홍 김재도 박춘제 서부근 전부길 황영욱 이광언 천기주 진성태 이기영 반미태 심복희 조기정 서인구·초청회원)은 대형 여객선 설봉호에 선승, 밤배의 낭만을 만끽한다.

려 놓는다(12:20). 대망의 백록담... 물이 적고 눈 앞에 정상의 파노라마는 손에 닿을 듯 아름답다.

정상 근처 대피소의 공원관리 직원이 등산로 안내와 정상 부근의 식물 생태계 등에 대해 설명해준다.

#### 태풍에 북벽 크게 훼손

날씨가 너무 추워 식사는 용진각대피소에서 하기로 하고



제14회 신우회 동문·가족들이 한라산 등정을 하기 전에 산행 물머리인 성판악에 표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 정겨운 밤배 낭만 즐겨

12일 오전 6시 제주항에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아침식사를 '계는 감추듯' 마치고 도시락과 식수를 챙겨 성판악 대피소를 거쳐 정상을 향해 출발한다(07:30).

1200고지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 모두 준비한 우의를 챙겨 입는다. 사라대피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약수를 가득 담는다.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11:50)하니 빗줄기는 더욱 거세다.

#### 겨센 비바람 속을 뚫고

A팀(전부길 황영욱 서부근 박춘제 반미태 서인구 김재도)은 B팀 조장인 박청홍 동문에게 무사히 하산토록 당부하고 정상을 향한다. 비바람이 거세다. 선두는 개방돼 있는 동봉(1933m)에 무거운 발걸음을 내

하산을 서둘러 신장에 도착(13:50)하니 바람도 잠시 숨을 죽인다.

꿀맛 같은 증식을 해결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지난번에 붙어닥쳤던 무사와 매미로 정상 북벽의 상태가 상당히 훼손되었으며 겨울이면 눈꽃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구상나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

#### 기력 다해 관음사 곁인

일행은 용진각대피소를 뒤로 하며 삼각봉을 지나 개미목~개미등을 지나 탐라계곡 대피소에 도착한다. 모두들 기진맥진한 모습이다.

기력을 다해 관음사 야영장에 닿는다(18:15). B팀 대원들은 혼쫓이 났다고 엄실을 부린다. 한라산 등정은 이번 고생을 담보로 성공을 거뒀다. 감개무량하다.

### 후라회 30돌 기념 경부야구대회

제24회 구덕구장서 격돌... 부산 16-15로 서울 제압



모교(경남중·고교)를 '야구명분'으로 우뚝 서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제24회동기회 후라회가 올해로 30주년 전통의 기념탑을 세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추억 잇는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경부 친선야구대회를 펼쳤다(사진).

후라회는 지난 1976년 12월 본부동창회 주최 기별대향야구대회 치러출전을 위해 창립했다.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 부산 구덕야구장. 50대가 펼치는 후라회 창립 30주년 기념 경부 친선대회가 주심의 "플레이볼!" 선언으로 광파르를 울렸다. 앞서 김문선씨(안상수 부산 본부동기회장 부인)가 시구, 박수를 받았다.

1회 초 선공의 서울팀은 2번 이종구의 2루타와 허구연 오기봉을 잇는 연속 3안타로 선취점을 올려 패조의 공세.

그러나 부산팀은 5번 타자 구본준의 투수 앞 땅볼을 투수 정기준이 곧바로 3루로 송구했고 3루수 이방우가 재빠르게 2루에 송구, 1, 5, 4로 이어지는 병살 묘기를 펼쳐 위기를 극복했다.

부산팀은 1회 말 반격에서 1사 후 안타로 나간 김경남이 특유의 주력으로 2루와 3루를 훔쳤고, 투수 구본준의 폭투로 홈까지 밟아 첫 득점. 부산팀은 네이슨볼로 진출한 3번 정기준을 5번타자 장한종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홈에 불러들여 전세를 2대1로 역전시켰다.

이후 서울팀은 2회 초 1점을 비롯해 3회 1점, 4회 2점, 6회 3점, 8회 5점, 9회 2점 등 모두 15점을 올렸다. 이에 맞선 부산팀은 2회 말 5점, 4회 2점, 5회 1점, 6회 4점, 8회 2점 등 모두 16점을 뽑아내 서울팀을 따돌리고 승리를 거뒀다.

△감사패 : 장민재 △감독상 : 구본준 △최우수선수상 : 김학주 △우수선수상 : 우홍하 △감투상 : 조백인 △우수투수상 : 정기춘 △미기상 : 태창업 △수훈상 : 강영창 △공로상 : 강중문

### 제천 동산서 경부합동산행 제23회, 10월 중 가을행사

제 23회동기회 경부합동총계 등산대회가 지난 5월 28일 충북 제천 근교 동산에서 5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박수갑 회장이 총괄하고 구준욱 산행대장이 리드했다.

A·B조로 나뉜 산행팀은 청풍호수를 내려다보는 동산을 5시간 30분 동안 등정했다.

하산 후 일행은 서울회가 주관한 단합회에서 제천의 별미떡거리를 시식했다.

### 어디서 무엇을

<캐나다 토론토지역동창회 ②>

- 金泰正 (18회) = TaeJeong Kim, 69 Shilton Rd. Scarborough ON M1S 2J8, (Tel) 416-754-3577
- 金泰錫 (18회) = TaeSunk Kim, 108 Attwood Dr. Cambridge ON N1T 1P6, (Tel) 519-622-8679 · 519-624-5992
- 김영철 (18회) = YoungChul Kim, 27 Greenwin Village Rd. North York ON M2R 2R9, (Tel) 416-226-9504
- 黃性賢 (19회) = SungHyun Hwang,

- 255 Thistle Down Blvd. Etobicoke ON M9V 1K6, (Tel) 416-740-3295 · 416-533-6656
- 朴泳錫 (19회) = YungSuk Park, (Tel) 905-763-1810
- 김교현 (19회) = KyoHon Kim, 9 Riverview Rd. Markham ON L3P 1E4, (Tel) 905-294-7180
- 元大健 (20회) = Daekun Won · 지역 회장, 35 Finch Ave. E. #805 North York ON M2N 6Z8, (Tel) 416-226-0758 · 416-226-6281
- 정월남 (21회) = WolNam Jung, 26 Pendith St. Toronto ON M6G 1R7, (Tel) 416-538-2048
- 김호영 (21회) = HoYoung Kim, 33

- Gretman Cres. Markham ON L3T 5L9, (Tel) 905-763-2285
- 金昌杰 (22회) = ChangGiel Kim, 5645 Yonge St. Toronto ON M2M 3T2, (Tel) 905-762-0696 · 416-590-9589
- 金大信 (22회) = DaeShin Kim, 21 Belinda Square Scarborough ON M1W 3M1, (Tel) 416-499-5996 · 905-542-6452
- 金鳳俊 (22회) = BongJoan Kim, 278 Duplex Ave. Toronto ON M2M 1P8
- 趙寬鎬 (22회) = KwanHo Cho, 307 Markland Dr. Etobicoke ON M9C 1R4, (Tel) 416-626-6965
- 임민순 (23회) = MinSoon Im, 619

<7면에 계속>

- (5면에서 받음)
- 余文碩 (17회) = MoonSeok Yeo, 189 Strathearn Ave. Richmond Hill ON L4B 2S7, (Tel) 905-884-9309 · 519-822-9420
- 李永敏 (17회) = YungMin Lee, 88 Clendenan Ave. Toronto ON M6P 2W8, (Tel) 416-762-6358 · 416-588-7286
- 金在桂 (17회) = JaeKye Kim, 1352 Woodbine Ave. Toronto ON M4C 4G2, (Tel) 416-421-3707 · 416-421-8826
- 李應天 (17회) = EungChun Lee, 1098 Fleet St. Mississauga ON L5H 3P7, (Tel) 905-278-5620 · 416-231-3011
- 李憲永 (17회) = HunYoung Lee, 65 Emmett Ave. #2309 Toronto ON M6M 2E5, (Tel) 416-614-7498
- 金一原 (17회) = IlWon Kim, (Tel) 416-221-8272
- 白基德 (18회) = KiTok Paek, 2503-95 Thorncliffe Park Dr. Toronto ON M4H 1L7, (Tel) 416-425-3875 · 416-701-9231
- 李正寬 (18회) = JungGwan Lee, 329 Renforth Dr. Etobicoke ON M9C 2L6, (Tel) 416-695-9492
- 裴東鎬 (18회) = DongHo Bae, 140 Holmes Ave. North York ON M2N 4M6, (Tel) 416-590-9172 · 416-891-2544

<6면에서 받음>

Main St. Niagara Falls ON L2G 6A2, (Tel)905-354-3825
宋鎭聖 (23회)=HoSung Song, 333 Byng Ave. North York ON M2N 4N7, (Tel)416-222-1615
章在勳 (23회)=JaeHoon Jang, 12 Arrowstook Rd. Toronto ON M2K 1J9, (Tel)416-221-0022·416-473-5182
具本春 (23회)=BonChoon Ku, 100 Quebec Ave #1602 Toronto ON M6P 4B8, (Tel)416-604-9790·416-766-9432
裴基永 (26회)=KiYoung Bae, 17 Leith Place Toronto ON M4N 2R9, (Tel)416-440-0334·416-728-0475
王正模 (27회)=JungMo Wang, 25 McCave Cres. Thomhill ON L4J 2S6, (Tel)905-761-7913·416-560-3674
金永一 (27회)=YeongIl Kim, 25 Piccadilly Rd. Richmond Hill ON L4B 1S6, (Tel)905-771-9463·905-660-7402
李昌建 (28회)=ChangKeon Lee, 6 Forest Laneway #2203 Toronto ON M2N 5X9, (Tel)416-225-1649
黃載植 (29회)=JaeSik Hwang, 3 Esterbrooke Ave. #1511 North York ON M2J 2C4, (Tel)416-495-8825
이재권 (29회)=JaeKwon Lee, 380 Drewry Ave. North York ON M2R 2K4, (Tel)416-895-1258·416-590-9413
林大成 (29회)=DaeSung Lim·지역총무, 20 Teagarden Crt. Thomhill ON L4J 6B1, (Tel)905-761-9514·416-635-6037
吳承錫 (43회)=SeungSuk Oh, 10 Ruddington Dr. #1005 North York ON M2K 2J7, (Tel)416-225-4250

(캐나다 토론토지역동창회 명단 끝)

제 8 회

申昊均=(자택 이사)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800번지 대우아파트 104동 803호
李熙淳=(자택 이사)경기도 용인시

제 25 회

盧泰旭=휴먼컴퍼스(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의원에 당선,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2-8번지 대영빌딩 5층. 02-3481-5933

제 28 회

金命永=김명영치과의원장. (개업)8월1일부 구포역 앞의 기존건물 1층에서 2층으로 확장 개업. 011-579-0286
金容燮=한국알콜 이사에서 (주)플스플랜 영남지사장으로 근무. 053-853-3822·011-569-6003
裴明俊=대한항공 인천지점에서 부산지점으로 전보. 051-970-

기흥구 인남동 496 동일하이빌2차 아파트 202동 402호
洪光秀=(주)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무소 전무이사. 3월27일 건설기술인 날에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

제 9 회

吉永杓=(자택 이사)부산시 북구 덕천3동 418-38번지
朴浩一=(자택 이사)부산시 북구 덕천3동 주공아파트 202동 713호
李鍾英=이종영소아과의원장. 8월24일 별세

제 10 회

權大觀=(자택 이사)서울시 도봉구 잠문4동 59-5 한양6차아파트 603동 803호
金大元=부산시 남구 문현2동 806번지 보람프레시아파트 1906호
金在坤=(자택 이사)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97-30 방배3차 e-편한세상아파트 104동 701호
方錫舜=(자택 이사)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울리 986 청석마을 대원효섭아파트 904동 604호
李宣衡=(자택 이사)부산시 동래구명륜동 SK부아파트 104동 703호
李昇榮=부산시 서구 토성동3가 15-5번지 건한아파트 501호
李宇永=(자택 이사)WooYoung Lee, 89 West Shore Drive Pennington N.J.08534, USA.
李正浩=부산시 북구 금곡동 1898번지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01동 403호
洪性贊=(자택 이사)HongSung Chan, 3 Hudson Watch Drive Ossining N.Y. 10562 U.S.A. (Tel)914-923-2975

제 13 회

金正成=(개업)8월31일 새동래병원 (신경정신과) 개업.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651-12. 051-936-2000
徐珍石=8월15일 모친 별세. 019-9908-8963
李相澤=샘안양병원 이사장·분부회회장. 8월30일 장모 별세. 031-

3255·019-508-5029
裴貞煥=7월24일 부산은행 연세지점장으로 발령. 부산 교대앞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부근 소재. 051-863-4536·011-9511-4742
魚晴佑=마천한의원장. (개업)8월1일부 송도 유엔호텔 맞은편에 여경우한의원 이전 개업. 051-246-1646·017-559-4600
尹德承=두산부산지점장 용퇴 후, 우성종합주부(합자) 대표로 취임. 8월1일부 영업 개시. 051-303-8081·011-340-9570
李京抱=이조명과 대표. 부산시 서구 제1선거구 기초의원원으로 당선. 011-554-9457

어디서 무엇을

467-9123
張 清=7월12일 별세
全福龍=8월16일 장모 별세. 011-492-2555
韓寬樹=8월13일 장모 별세. 017-711-5086

제 14 회

李安夫=9월30일 서울 압구정동 소마교회 선교관 2층에서 장남 용우군 결혼
李桓均=8월8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장준군 결혼

제 15 회

孫芳鉉=(자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 104동 602호
李永正=(자택 이사)울산시 남구 옥동 127-1 영남빌라 1107호
全東錫=8월14일 부친 별세
鄭俊秀=7월12일 모친 별세

제 17 회

姜佑相=참푸드 대표. 서울 증구 신당동에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사
高培植=서울서 경기 안성으로 이사 후 개인사업중
金基道=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로 이사. MBC 재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
文龍甲=꽃내마을 대표. 서울 양천구에서 성동구 옥수동으로 이사
安國正=SBS 사장.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사
余成國=7월22일 아들 결혼
李健雄=벤츠·한성자동차 사장. 한성그룹 지주회사 한성임베스트먼트 사장으로 전보. 02-3479-8770

제 18 회

姜東燮=강동철소아과의원장. 051-634-9305
金敬傑=동원철강대표. 051-757-2945

어디서 무엇을

李仁洙=부산지방해양청장. 해양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張基南=(주)삼탄인도네시아 지사장에서 6월초 분사 기획실 상무로 전보. 02-527-6230·011-9011-6241
장희창=1987년 교수시국선언에 참여한 죄(?)로 해직후19년만에 동의대 복문과 교수로복직

제 30 회

金伯洙=선우금속 대표. 055-328-3740·017-856-6720
金成福=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

金吉帝=(주)M.S.C. 대표. 055-463-8261
金炳洙=경남 거제 장평 코아루아파트 현장관리실. 055-638-4961
金萬根=세황전자대표. 055-251-9713
金永一=등은병원 원장. 055-384-7575
金正來=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삼부빌라302호. 010-4541-8929
김현무=대구 법정대학 교수. 053-850-6121
南斗鎮=금강애식장 대표. 051-554-7500
成時濟=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한신아파트 105동 202호
宋裕峰=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등부아파트 105동 1302호
林永燮=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오리마을대표. 051-263-7200
張淵植=(주)하성문류 이사. 051-441-7383
曹正甲=참스라인 부산사무소 소장. 051-316-3217
千斗甲=분부동기회 회장·유니코상사대표. 051-319-3931
崔翔惠=청천화원 대표. 051-647-6167
河斗錫=한아정공 대표. 051-202-0123
黃光健=황소아과의원장. 051-294-9739
黃明吉=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아파트 102동 301호. 051-701-8393
黃昌煥=대구시 남구 대명9동 493-20번지. 017-847-9850
洪鍾秀=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 우성아파트 102동 901호

제 20 회

李鍾贊=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개업)9월4일 변호사사무소 개업.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70-11 로우플러스 206호. 02-978-7600

제 21 회

高南水=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우성아파트 103동 1805호

金貴經=5월13일 장남 결혼
金大煥=(주)등우도시개발 대표. 8월17일 장녀 결혼. 02-597-4477
金漢星=5월17일 장남 결혼
朴健寬=6월17일 장남 결혼
朴奉欽=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02-759-5505
朴仁協=6월30일 부산일보 서울지사장 퇴직
成潤洙=5월13일 장녀 결혼
禹鍾得=(개업)7월7일 탐모, 두피관리센타인 스피라-랜드 서면점 개업. 051-816-8545·010-7506-0311
吳巨敦=동북아미래포럼 대표. 부산시 남구 대연5동 해암빌딩 11층. 051-611-8401
李承彥=7월16일 별세
張肅圭=6월9일 부인 별세
鄭永權=(주)해원차타링 대표. 02-722-4151
鄭天一=5월17일 장녀 결혼
曹甲植=(주)세진플랜트산업 대표. 7월5일 모친 별세. 02-261-9566·011-888-9505
陳允九=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527번지 도곡백슬아파트 305동 804호. 02-573-2700
車東玟=한국전력연구원 실장. 7월15일 장녀 결혼. 042-865-5500·010-3005-5509
崔殷榮=5월27일 장남 결혼
韓龍大=서울 강남구청 감사과 과장. 02-2104-1070
許翹鳳=5월5일 장녀 결혼

제 23 회

金基烈=큐타임 발행인. 6월28일 시민회관에서 창간 기념 및 백혈병어린이돕기 "CONCERT" 개최
李成圭=6월17일 부산 서면 부전교회에서 장남 결혼. 051-805-3257
趙珉濟=(자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파크아파트 114동 4702호
趙允鍾=부산대등고등학교 교사. 051-292-1694
曹孝根=남산병원 원장. 051-582-9461

051-240-6100·011-9346-8863
金成殷=5월18일 모친 별세. 011-886-0652
金榮玉=농협 재송동 지점. 051-783-3820·017-567-9400
金振權=김진권회부과의원장. 051-558-8850·010-9988-0734
金喆光=8월21일 모친 별세. 011-9040-9848
朴成重=서울 서초구청장 당선
石熙源=부산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051-462-8780·011-9308-2805
尹寅台=부산지법 등부지원장으로 영전
李基煥=한국해양대학교 교무처장.

051-410-4003·010-7169-9707
李榮峻=서울탐치과. 051-702-2800·011-9503-5072
印埈昇=한전 남부산지점. 051-740-1237·011-585-3782
鄭敬穆=명보사. 051-245-5676·011-836-5676
鄭璟錫=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서기관으로승진. 02-397-1316
丁承珍=6월27일 모친 별세. 011-866-5449
鄭有哲=정유철치과. 051-642-1876·011-9547-0052
趙鑰業=동양엘리베이터 부산지점장. 011-272-8098.

# 본부·재경 용마산악회 사상 첫 합동 등반

## 200여 명 갑장산서 결속 과시

경북 상주시 근교 갑장산 (805.7m)은 사상 처음으로 열린 본부·재경 용마산악회 합동등반대회에 참가한 용마알피니스트들의 원색들결로 수놓아졌다.

지난 9월10일 오전 10시30분 갑장산 산행 들머리 용흥사 주차장. 본부 용마산악회 (제27차 등반·06 제3차 행사)와 재경 용마산악회 (제89차 등반) 합동대회에 참가한 경북 용마산우들은 보고 싶던 친구끼리, 반갑기 그지없는 선·후배끼리, 처음 만나는 선·후배끼리, 가족은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느라 파시를 방불케 했다.

참가자는 부산에서 하영수 회장 등 154명(가족 25명 포함), 서울에서 임장주 회장 등 121명으로 모두 275명이 참가했다.

### 산행대장 신남석·구춘옥

잠시 후 거행된 기념식은 부산·재경 임원진 소개·양측 회장(부산 하영수-17회·재경 임장주-19회) 인사·집행부의 장비 점검 및 산행코스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부산측 산행대장 및 부대장은 신남석(21회)·오기득(23회), 서울측 산행대장은 구춘옥 등분(23회)이 맡았다. 서울의 이재동 총무(23회)와 부산의 서민석 총무(30회)는 행정·설비 등을 분담해 수고가 많았다.

경부 용마산우들은 오전 10시

50분 용흥사 주차장을 출발, 연악산 쉼터 좌측 능선~상산~분필봉을 차고 오른 다음 지친 숨을 달랠고 이어 갑장사 갈림길에서 발길을 멈췄다(12:30).

### 산행 1시간45분 만에 정상 등정

일행은 오후 1시10분까지 근처 구룡연 약수터와 헬기장에서 동기회별로 모여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산행을 시작, 20분 만에 갑장산 정상에 올랐다.



본부·재경 용마산악회 275명의 산우들이 사상 처음으로 열린 갑장산 경부합동 산행에 나서기 전 용흥사 주차장 앞에서 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하산은 오후 1시40분에 재촉되었다. 일행은 석문(10분간)~735m봉(용포코스 갈림길-20분간)~와곡코스 갈림길(20분간)을 지나 오후 3시 30분 용흥사 주차장에 선발대가 원점회귀했고, 오후 4시30분 마지막팀을 기다렸다가 산행을 마무리했다.

순간 일제히 "후라 경고!"가 한 목소리로 터졌고 '무사고 원점회

귀 산행'의 성공에 서로 격려와 약수를 나눴다.

### 경부 각각 '새 역사' 기록

이로써 부산·재경 용마산악회는 이날 사상 첫 합동산행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각각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신라가든에서 열린 단합회(17:30~19:00)는 풍성한 정담 속에 절골의 갖가지 산채요리와 별미의 흑돼지 수육, 닭백숙 등으로 향기 짙은 더덕뽕뽕주의 술잔이 바쁘게 오갔다. 오후 8시쯤 부산·서울팀은 작별했다.

### 11월 12일 양산 천성산서 본부회장기 정발 등산대회

한편 용마산악회 서민석 총무(30회)는 귀가길 버스 안에서 '제28차 등반대회('06 4차 산행)는 오는 11월12일 경남 양산 근교 천성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날 본부회장기 등산대회와 시상식을 겸한다고 전했다.



제10회동기회 졸업 50돌 홈커밍데이축제가 오는 10월 19일 부산에서 열린다. 사진은 40주년 행사 때 부산·서울 동문들이 모교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한 모습.

## "10월19일 부산서 만나세"

### 제10회동기회 졸업50돌 홈커밍 준비 박차

"오는 10월19일 부산에서 만나세!"

제10회동기회 졸업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행사가 오는 10월19일 부산에서 모교방문~기념식~송도페스티벌 등 하루전치로 열린다.

이 같은 일정은 지난 8월21일 부산 송도공원(페스티벌 개최 예정 연회실:051-245-2441~2)에서 열린 부산·서울 행사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부산에서는 김선동 공동추진위원장(동기회장)을 비롯해 안 흥·오강욱·이재순·서정철 위원, 서울에서 정인호 공동추진위원장(서울회장)을 비롯해 이민섭·이정배·최성열·이병철 위원이 참석해 당일 행사 프로그램을, 예산 규모, 졸업50주년 기념분집 발행 등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했다.

행사일정에 따르면, 서울팀 당일 오전 부산역 도착(11:05)~환영회(광장 분수대 앞) 후 모교 경남고 도착

(12:00)~기념식 및 고정 산책(12:40까지)~송도공원(4층 생선회 전문 코너) 행사장 도착(13:10)~등분소개·식사(15:00까지)~국악 연주·노래방 여흥(17:00까지)~송도해수욕장 등 해변 산책(18:00까지)~부산역 도착(18:30까지)~저녁 식사(19:00까지)~서울팀 KTX편 부산역 출발(19:40) 등이다.

행사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각자에게 이쩌면 '평생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만큼 모두 모여 50년 우정을 꽃피워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 경우 △행사기급납부는 국민은행 086601-04-058259 이병철(경열회)로 △1구좌 10만원으로 하되 2구좌 기본으로 그 이상 최대한 협조 요망 △단체로 KTX 이용 경우 왕복요금 기금에서 지불 △KTX 이용 시 당일 07:45까지 서울역 3층 KTX 대합실 집결 △개별 출발 시 당일 11:00까지 부산역 광장 분수대 집결 등이다.

### 일오산우회 235차 산행대회 이동근·권승부 특찬금 쾌척

일오산우회 제235차 산행대회가 야유회를 겸해 지난 8월20일 동아대병원 앞~수원지~석탑(휴식)~엄궁산 산허리~꽃동네~구덕야영장 코스에서 열렸다.

이날 산행은 이동근 회장 등 부부등반 21명이 참가했고 권승부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았다.

일행은 집행부 제공의 영양탕으로 체력을 보강한 후 하산, 노래방에서 뒤돌아섰다. 이 회장과 권 산행대장이 각각 10만원과 17만원을 특찬했다.

### 세째주 목요일로 사니조아 일오산행 변경

#### 매생이국+막걸리 '찰떡궁합'

재경 경열회 등산모임인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일요일등산에 문제가 많아 부처절하다"는 다수의견을 수렴, 8월

부터 3째주 화요일이나 목요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8월 산행은 3주째 목요일인 17일 대공원 삼림목장 산책을 단행했다. 일행은 한결같이 "산꾼들이 덜 몸벼 살맛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우면산 등산(사당역에서 우성아파트~대원사~공군부대~썬터

~220계단~소방탑~예술의 전당 코스 3시간 소요)은 7명이 참석했는데, 며칠 전 내린 비로 등산로가 축축이 젖어 걷기가 좋았다.

일행은 터미널 근처 순천집에서 유별스런 맛이 담긴 파전과 별미의 매생이국을 시켜 막걸리와 소주잔을 들리고 또 들었다.

GOLF

동창회장배쟁탈  
제9회 용마골프대회



- 일 시 / 2006년 10월 30일(월)  
오전 9시 첫 Tee Off (예정시간)
- 장 소 / 부산 C.C.
- 대회구분 / 1) 기벌대항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2) 개인전 (뉴페리어 방식)  
3) 시니어부 개인전 (1회~12회)  
4) 용마가족 여성부 개인전 (동문 부인)
- 참가신청 / 본부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주 최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